

2016년 11월 9일, 구좌읍 세화리 조홍순씨 댁, 송정희 조사.

제보자1: 김순자(여, 1947년생, 구좌읍 세화리)

제보자2: 조홍순(여, 1924년생, 구좌읍 세화리)

[제보자1] 경 허고, 그 옛날 우리 우리 삼춘도, 우리 삼춘도 그 아지망 집이. 우리 삼춘
아지망 두서어멍 아지망.

[제보자2] 응.

[제보자1] 아지망네 집이양 그 이제 그 사둔이 돌아가니깐 그 저 뭘 이제 팥죽을 썰 간
거라. 가나네이 당신 생각에 막 불이 잇는 거라이. 옛날에 집 가젠 헤도 불도
막 봐지곡 허난 어떻 헹 몸이 으쓱헌 거라양. 우리 어멍이 곧는 게 으쓱허난 아
그디 간 죽도 먹고 썰 가나네 먹어네 그 물허벅 지엉 영 오는디 아이 막 그것
이 쫓아완 쫓아완양.

[조사자] 불이?

[제보자1] 응. 불이 쫓아완.

[제보자2] 도체비 잇인 집이게.

[제보자1] 응. 옛날 그 막 도체비 모시는 집이 영 보민 한동?뜬 디. 두망 두망 잇어낫어.

[제보자2] 옛날에 한동.

[조사자] 쫓아왕 어떻 헹마씨?

[제보자1] 쫓아오난, 쫓아와네 헤신디. 집 왕 엊어진 거지. 집이 들어 왕 엊어진 거지. 그
때 막 아판게. 아판 막 굿도 멧 번 허곡, 굿도 혼 삼년에 혼 번씩 일년에 혼 번
썩 헷젠 협디다. 삼춘? 두서어멍.

[제보자2] 경 헷저게.

[제보자1] 경 막 헤네. 그거 이젠 뭣고 굿헨 굿헤네. 그 천지대왕교. 해월스님 허는 거 시
홍리에 잇어 그디. 그디 가면은 타불교도 가면은.

[제보자2] 바당 해 제. 그디.

[제보자1] 응. 그디 가면은 저 바다에서 구신 부뜬 사름덜. 또 이런 디서 그런 사름덜 그
디 가면은 막 물로 헹 뿌리멍, 막 때리멍 저 헤그네 막 다 울려. 물에 무신 물
에 부뜬 사름은 나 타불교 믿지 안 혀도 다녀낫주게.

[조사자] 타불교?

[제보자1] 응.

[제보자2] 타불교가 아니고 천지대양교.

[조사자] 천지대양교?

[제보자1] 응, 천지.

[제보자2] 천지대양교 시흥리.

[제보자1] 천지대양교렌 허그네 종달이도 노란집도 잇고 다 잇어. 그런 집도.

[제보자2] 옷도 오른쪽으로 돌양 입곡. 이 짓도 바판.

[제보자1] 짓도 저고리도 우리는 한따이헤여. 한따이로 일본말로 한따이로. 우린 이렇게 짓 두는디 그 사름덜은 오른쪽으로.

[제보자2] 오른쪽은 영.

[제보자1] 그디 가네. 때왓덴 말은 잇어.

[제보자2] 그 할망 그디 정 헹 살고 헌데이.

[조사자] 타불교는 뭐파?

[제보자1] 타불교는 타불교나네. 그것도 다 잇주. 그 이제 저 뭣고.

[제보자2] 해월스님 도술 좋아.

[제보자1] 종달도 그 타불교 잇어낫는데.

[조사자] 계난 잠깐만 그 천지대양교에 해월스님이.

[제보자1] 응.

[조사자] 도술이 좋아마씸? 도술이?

[제보자1] 바다 해 자 해월스님이렌 헌 건.

[조사자] 바다 해 자 해월스님?

[제보자1] 응. 바다 해 자 해월스님이렌 헌 그디 신이 잇어. 신이.

[조사자] 아, 신이.

[제보자2] 경 허니깐 막 추운 날도 눈이 팡팡 오라도 그 언 물에 목욕허고 그 거세기.

[제보자1] 경 헹 거기 가네이. 〽찌 닮아. 거기서 고쳐네 이제 자식들 그 족은메누리는 쪽 다녀나고 막 그것이.

[제보자2] 음식도 막 골령 먹단이 나이드난 아무거나 먹어 낫저.

[제보자1] 에, 에 경 허난이, 자꾸 아파네 헷젠 허멍. 나가이 “어떻 헹 우리삼춘은 거기 다녔우과?” 영 허난, 우리 시어머니보고 말허니깐, 그때 경허네 구신 부떠완.

- 핵심어 : 도체비, 불, 천지대양교, 해월스님, 팥죽